

# 사람·자연이 깨끗한 무주 만든다

## 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실천운동 펼쳐

무주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실천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7일 무주군에 따르면 △공직자 의식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부패유발요인 제거와 예방기능 강화, △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벌일 방침으로, 공직자 의식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 강사 초청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새 행정시스템 상에 청렴 나눔 방(청렴

활동사례 및 관련소식 게재)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2일에는 무주군청 기획실 감사팀 오해동 팀장이 군 소속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자체감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청렴 관련 교육을 진행했던 무주군청 기획실 문현중 실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키고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의무"

라며 "나 자신과 공직내부는 물론, 군민들 모두가 인정하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전광판, 군정알림이와 반딧불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부패방지, 공직비리 신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과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자에게 청렴실천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부패유발요인 제거와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부패공직자 처벌을 강화하고 익명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해 행위 발생 자체를 근절할 방침이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경보가 울리게 하는 등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내실화해 부패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등 자료공개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비리 관리 책임제를 시행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해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한 내·외부,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3등급을 받으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주=전문기자



지난 22일 무주군청 기획실 감사팀 오해동 팀장이 군 소속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자체감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 장수군 종자산업 기반구축 공보사업 확정

### 예산 4억2000만원 확보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자료작물종자 분야 종자산업 기반구축 공보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종자와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보사업을 통해 군은 국내육성 조사료 채종 종자 건조·정선·포장·저장 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 조사료 종자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국내우수 조사료인 귀리, 호밀과 트리트케일 3품종에 대해

지역적응 연구사업을 추진, 2017년부터 자체 채종한 종자를 활용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서정원 소장은 "조사료 지역생산·지역소비인 로컬피드(Local feed)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수한우 명품 브랜드 가치 강화 및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봄철 대형산불 방지 행정력 집중

진안군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수립 산불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 준비와 나들이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불철지역축제와 행사에서 총 42명의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동원하여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펼쳐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100m 이내)는 발두령 및 쓰레기소각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군은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발생에 대비한 감시와 예방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심화교육을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 무주군, 강소농 경영개선 심화교육

### 선진농장 견학·벤치마킹·이론 강의 진행

무주군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심화교육을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에는 김제시와 부안군을 방문해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 체험프로그램 마케팅 운영 및 △강소농 자율모임체 성공 사례, 그리고 △신규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교육과 선진농장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29일 교육에서는 △농장 장·단기 목표 설정 방법과 △비품고가역(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창조, 역량강화)의 이해 △실천노트 작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이 강의될 예정

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소장은 "요즘과 같은 농업환경에서는 경영 자체가 무척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후속교육을 통해 농·식품마케팅 활용방법, 회계실무, 실습 등의 농업 경영체 운영을 위한 농가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에는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강소농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60여 명이 참석해 운산마케팅연구소 윤선 소장으로부터 경영을 비롯한 △강소농 사업의 이해와 △농업환경 및 농산물유통변화, △마케팅의 존재가치, △크로리아 트렌드의 변화와 농업 적용법 등을 교육받았다. 무주=전문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운영

진안군은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안을 알리고 체험하는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올해로 4년째 실시하고 있는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는 진안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힐링 에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공직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4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4기, 하반기 2기 총 6기에 걸쳐 진행되며, 총 240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일정 동안 마이산 길과 운일안반월안 숲길, 감동버섯길 등 진안고원의 대표 트레킹 코스를 경험함으로써 진안고원 천혜의 자연을 직접 느끼게 된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목적형 시설인 흥산스파를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기(氣)를 충전한다.

군 관계자는 "진안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다는 해발 400m 고원지역으로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 모두가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 투자사업 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14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이다. 진안군은 올해 14개 사업에 총 7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별로는 아동·청소년서비스 8개, 노인서비스 3개, 저소득서비스 1개, 장애인서비스 2개 총 14개 사업이며, 내용별로는 정서발달지원서비스 8종, 건강관리서비스 5종, 가사간병서비스 1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관리 지침과 2019년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제공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민·관간 소통을 통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및 사업담당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위탁 가정·시설 보호 종료 아동에 자립수당 지급

### 진안군, 4월부터 시행

진안군은 27일 4월부터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주는 제도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데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위탁 가정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다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자립수당은 아동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보호 종료 후 또는 보호 종료 3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자립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www.kohi.or.kr)를 참고하거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자립수당 제도로 아동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내 아동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